

행정학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분석법의 방법론 분석: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1991-2005)의 사례*

이상호**

〈目 次〉

- I. 서론
- II. 내용분석의 의미와 방법론상 쟁점
- III. 내용분석의 과정과 단계별 논점
- IV. 내용분석의 방법론적 분석
- V. 요약 및 결론

〈요 약〉

내용분석은 역사적 비교론적 연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질차적 오류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자의 자의성 개입에 따른 신뢰성이 결여와 같은 내재적 한계로 말미암아 이 기법의 실제 활용도는 높지 못하다고 한다. 이 연구는 내용분석의 방법론적 특징을 염두에 두고 행정학 연구에서 이 기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어떤 방법론적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내용분석법을 적용한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을 개별 분석단위로 하였고, 내용분석의 기본적인 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을 토대로 분석기준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의 사례가 분석단위와 기준의 설정, 코딩 방법, 기타 신뢰도 측정 등 내용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이용된 사례의 수가 많지 않고 또 일부는 내용분석을 다른 연구방법과 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단정적인 주장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밝혀진 특징과 문제점은 추후 행정학 분야에서 내용분석법의 적용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제어: 내용분석, 문헌연구, 메타분석, 연구논문분석】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이율리 이 연구는 2005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써 토론자와 심사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비평과 충고로 완성되었음을 밝힌다.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부교수(leesho@pusan.ac.kr).

I. 서 론

국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정보(KISS)를 검색해 보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내용분석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야의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이 가진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메시지의 특성 기술로부터 인간의 심리상태의 파악과 사회 및 정치집단의 행태 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히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용분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다방면에 걸쳐 자료의 접근이 용이해졌고, 컴퓨터에 의한 자료분석 방법이 발달하면서 내용분석의 활용가능성도 아울러 증대하고 있다.

내용분석의 방법론적 특성에 대하여 Woodrum(1984)은 이것이 역사적 연구, 종단면적 시계열적 연구뿐만 아니라 비교론적 연구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으로써 아주 유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실험이나 조사연구와 달리 언제든지 절차적 오류의 재검토가 가능하여 방법론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 조사가 가능하면서도 연구실체를 훼손하지 않고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학 연구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윤견수(2005)에 따르면 내용분석에 의한 행정학 논문은 아주 적다. 이는 내용분석을 적용한 연구사례가 최근 아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커뮤니케이션 분야(김성태, 2005)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용분석이 사회과학에서 유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분야의 사례가 적은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Woodrum(1984)은 무엇보다 기법과 절차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법의 적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텍스트의 분석과정에 코더의 편의(bias)가 수반되어 신뢰성과 타당성을 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도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용분석의 활용도와 발전을 제한시켜 온 방법론적 제약과 한계는 기법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 행정학계에서도 한번쯤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행정학 분야의 내용분석이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그 과정 혹은 방법론적 문제점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우선 분석해야 할 연구문제는 내용분석 각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말하자면 분석기준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개별 사례가 연구문제의 설정, 자료의 규정과 표본의 선정, 분석단위와 기준의 설정, 기타 코딩 등의 과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반면에 분석단위는 행정학 연구 가운데 내용분석법을 적용한 개별 논문 모두로 설정하였으나, 논문의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모집단과 표본집단은 한국행정학보로 한정하였다. 특히 분석단위 가운데 표본에는 내용분석법이 다른 연구방법과 함께 사용된 논문도 포함되었지만 분석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의 목적이 분석단위로써 개별 논문 전체가 아니라 내용분석법을 적용한 장 혹은 절에 한해서 그 과정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분석단위는 분석기준과 함께 이 연구와 같은 내용분석의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항을 바꾸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것이다.

II. 내용분석의 의미와 방법론상 쟁점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연구문제와 분석자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구체적인 의미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Berelson과 Holsti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정의는 각종 문현에 나타난 여러 개념을 종합하여 내용분석의 특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erelson(1952: 18)은 “커뮤니케이션의 명백한(manifest) 내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계량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연구 기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내용분석의 대상으로 명백한 내용과 계량적인 분석을 강조한 것이다. Holsti (1969: 14)는 “특정한 메시지가 가진 특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추론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Berelson 등 여러 정의를 종합하여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써 내용분석의 대상 보다는 방법론적 절차의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학자로써 김경동·이온죽(1995: 321)은 “인간의 상징적 기호로 표현된 의사소통의 기록물의 내용적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나아가 그 동기 원인 및 결과나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론하려는 사회과학의 분석기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위의 두 정의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내용분석의 목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정의라 할 수 있다.

내용분석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연구문제에 따라 내용의 분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가 갈수록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용분석의 대상으로써 명백한 내용만으로 한정한 정의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내용분석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요소와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 행정논총(제45권2호)

첫째,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기록한 문헌자료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문헌연구(document study)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문헌자료에는 일반적인 기록물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인 상징과 회화도 포함된다. 심지어 최근의 심리학 분야에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정서적 반응을 인터뷰한 호스피스의 기록도 훌륭한 자료가 되듯이(Hsieh & Shannon, 2005)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 자료가 내용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학 분야는 지금까지 이용하여 온 것처럼 사서, 정부기록 및 회의록, 신문 기사와 연구논문과 같은 소수의 문헌에 의존하고 있어 내용분석의 역사가 오래된 언론학과 심리학에 비하여 다양하지 못하다. 하지만 내용분석은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관찰, 설문조사, 현지조사 등에 의한 자료수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필수적인 연구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행정학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내용분석은 명백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지만 간혹 잠재적(latent) 내용도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명백한 내용이란 텍스트의 분명하고 직접적인 의미를 말하며, 잠재적 내용이란 텍스트 혹은 특정한 상징이 함축하고 있는 미묘한 의미를 말한다(Holsti, 1969; Ahuvia, 2001). 전자는 단어의 빈도수로 측정할 수 있어 문제가 없지만, 후자는 주로 주제 혹은 특징을 통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분석자의 자의성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잠재적 내용의 포함여부는 내용분석의 대상으로써 오랜 논쟁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양자를 분리하여 주로 명백한 내용에만 한정하여 왔다. Berelson(1952)에 의하면, 내용분석이 잠재적 내용을 포함할 경우 함축적 의미에 대한 객관화가 곤란하여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저하되고 또한 반복적인 조사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Riffe 등(1998)은 과학적 객관성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내용분석은 명백한 내용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양적(quantitative) 내용분석이라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텍스트의 내용을 주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게 되는 질적 내용분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¹⁾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Riffe 등, 1998) 그러한 추세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²⁾ 즉, 명백한 내용에만 국한하게 되면 메시지 전달자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1) 엄밀히 말하여 질적 내용분석은 “체계적인 분류과정을 적용하여 주제 혹은 패턴을 코딩하고 확인함으로써 텍스트의 내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정의된다 (Hsieh & Shannon, 2005: 1278). 이에 더하여 연구자들은 잠재적 내용의 분석도 질적 내용분석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한편으로 내용분석의 질적 양적 경계의 설정을 무의미하게 보는 주장이 있다. 한 예로 써 Woodrum(1984)은 내용분석이 사회과학계에서 양적 및 질적 분석에 대한 가교역할

한계가 있으며, 텍스트의 내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인관관계에 대한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어려워 내용분석의 영역이 너무 좁을 수 있다는 이유이다 (Ahuvia, 2001; Hsieh & Shannon, 2005; Woodrum, 1984).

그런데 질적 내용분석에 대한 주장이 크다고 하여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의도, 가치, 동기와 같은 모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는 분석시 코딩절차의 적용과 코더의 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딩에 대한 합의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텍스트의 추론이 코디간 혼동을 초래하여 내용분석의 활용을 제약하게 된다(Woodrum, 1984). 따라서 잠재적 내용은 코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절차가 마련되거나 또는 의미의 분석과 해석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내용분석은 객관성과 체계성 등 과학적 연구방법의 요건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객관성은 조사자의 개인적 특성과 편견이 분석결과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복수의 조사자가 반복연구를 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분석의 기준(categories)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erelson, 1952).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석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질적 내용분석 또는 잠재적 내용이 객관성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내용분석은 특성상 방대한 자료를 분석할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분석 혹은 분류 기준의 설정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관성은 분석 자료로써 특정한 상징의 함축적 의미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기서 일관성은 분석 내용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기준과 동일한 척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객관성과 체계성으로 인하여 내용분석은 과학적 연구의 기본적인 요건을 아주 강조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분석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내용이 가진 특성을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량화를 선호한다. 내용분석의 목적은 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거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므로 계량

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Markoff 등(1975)의 ‘격리된 방법론(methodological ghetto)’을 인용하여 양적 질적 구분을 강조할수록 내용분석은 양 집단으로부터 수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으로 보았다. Ahuvia(2001)는 명백한 내용이건 잠재적 내용이건 간에 내용분석은 모두 의미론 분석(semantic analysis)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말하자면 양자는 종이위의 검은 점을 물리적인 잉크가 아니라 의미있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장은 다르지만 Holsti(1969)도 양자를 염격히 구분하지 말고 병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6 · 행정논총(제45권2호)

학가 정확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내용분석에서 계량화는 분석해야 할 내용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정확하게 요약해 주며,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추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구로써 다양한 통계적 방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점을 가진다(Holsti, 1969; Riffe 등, 1998). 따라서 계량화는 과학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특히 질적 내용분석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명백한 내용이 계량화와 과학적 방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합하다.³⁾

III. 내용분석의 과정과 단계별 논점

내용분석은 메시지의 일정한 패턴을 분석하여 내용상의 특징을 밝혀내려는 연구방법이다. 분석과정에서 내용의 해석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이 이 기법의 적용가능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Woodrum, 1984) 분류절차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일의 최선의 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아래의 단계가 순서대로 적용되고 있다. <표 1>은 내용분석의 개념과 특성에 따라 크게 문제인식, 연구설계, 분석 및 결과의 해석 단계로 나누고 검토해야 할 과정별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과정별 검토항목은 이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기준을 정의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것은 설문조사의 질문지와 마찬가지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를 위하여 독자들에게 적절히 보고되어야 한다.

3) Riffe 등(1998)은 내용분석이 명백한 내용, 계량화, 과학적 방법이란 특성을 구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양적 내용분석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사회학자인 김경동·이온죽(1995)은 내용분석의 수량적 접근만을 인정하여 계량적 분석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분석이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양적인 연구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질적 연구방법에서도 통계적인 분석이 핵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형태의 계량화 기법을 적용하게 된다. 윤견수(2005)에 의하면, 양적 질적 연구에 대한 판단은 분류기준의 적용에 관한 문제인데, 내용분석이 양적인 혹은 질적인 연구인가에 대한 논의도 질적 연구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질적 혹은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가는 여전히 판단의 문제로 남는다. 여기서 질을 판단하는데 그의 기준을 적용해 보면 내용분석의 개념에 충실한 연구는 적어도 분석의 주체와 자료, 그리고 목적의 측면에서 꼭 질적 연구의 범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이 어떠한 접근을 취하고 있건 간에 분석자의 판단과 자의성의 개입을 방지하고 따라서 내용의 추론과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량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1. 연구문제와 가설의 설정

내용분석의 첫 단계는 연구문제 혹은 가설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설문조사나 관찰법을 이용한 연구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타당성이 높은 문헌자료를 선정할 수 있고, 분석의 기준과 단위를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다.

탐구적 연구와 달리 메시지의 효과를 추론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가설을 설정할 것이 요구된다. 연구문제와 가설은 선행 연구와 이론 등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보다 새롭게 설정할 수 있고 또 기준의 것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은 연구문제 혹은 가설의 설정에 관한 것이다.

2. 문헌자료의 규정과 표본선정

먼저 문헌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모집단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선정할 자료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또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다.

연구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내용분석의 주제는 장기간에 축적된 방대한 자료의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집단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부록>에서 행정학의 연구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분석 자료로 선정한 「유형 I」보다 「유형 II」와 같이 신문기사인 경우가 더욱 어렵다. 어떤 신문을 선정할 것이며 시간적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타당성을 가질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할 자료의 대상 혹은 종류와 범위를 가능한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표본집단의 선정이 용이하다.

다음으로 표본추출과 관련하여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일치성 및 표본추출 방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정된 표본집단이 모집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계학적 정당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일치성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역시 <부록>의 「유형 I」과 같이 연구주제에 대한 자료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연구목적 모집단의 일부로 표본추출 모집단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⁴⁾ 이 경우 표본추출 모집단의 특성과 성격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므로 일치성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될 수도

4) 김태일·서주현(1998)은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통하여 일반화하려는 대상을 연구목적 모집단으로 규정하고, 연구를 통하여 직접 표본추출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표본추출 모집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생소하지만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보다 현실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쉬우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있다.

간혹 일치성은 통계학적 정당성을 떠나 문헌자료의 유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추출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표본 추출단위, 기록단위, 분석단위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한국행정학보의 논문을 표본추출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성을 분석한 경우를 보자. 대표적으로 권경득(1996)은 위상과 권위를 고려할 때 한국행정학보는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일반화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에, 하태권(1995)은 한국인사행정의 연구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행정학보를 포함하여 두 개의 전문학술지와 주요 대학학술지 등을 선정하면서도 탐색적 연구로 규정짓고 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한국인사행정의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한된 표본추출 모집단의 구성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어 일치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구논문의 경우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대표적 학술지의 일부로 표본집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 두 집단간 일치성을 상당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는 표본집단으로써 한국행정학보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인정되므로 일치성을 인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특히 표본집단이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전수조사를 통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반화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게다가 위의 경우는 확률표본추출, 즉 무작위 표출도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출 방법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유형 II」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런 유형의 자료는 전체 발행호수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확률표본추출의 원칙에 따른 무작위표본추출보다는 할당표본추출 방법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할당표본추출은 보통 시간배열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표본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특정한 시점에만 발생하는 기사가 표본추출에서 누락되거나 반대로 과잉 대표될 확률이 높으므로 오히려 의도적 표본추출이 유리할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헌자료의 표본추출은 연구주제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아울러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은 문헌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표본의 성격과 표집방법을 어느 정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가이다.

3. 분석단위와 분석기준의 설정

분석단위는 분석하려는 메시지 혹은 내용의 최소단위를 말하며, 반드시 측정

가능한 단위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단어, 구, 문장, 문단, 문서가 분석단위로 많이 사용되며 간혹 주제와 등장인물도 사용된다(Harris, 2001). 단어는 측정은 용이하나 메시지 전체의 의미파악이 어렵게 되며 문단은 그 반대이다. 그러나 주제는 둘 다 쉽지 않으므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행정학 분야는 논문 한 편, 연설문 전문, 신문의 기사 한건과 같은 항목(items)이 분석단위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항목은 주제와 같이 단위 자체가 광범위하고 상호간의 경계선이 불확실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가장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김경동·이온죽, 1995). 이들은 내용분석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문헌이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분석단위의 설정에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조작적 정의를 해야 한다.

분석기준은 분석단위를 체계적으로 분류 또는 배열하기 위한 범주(categories)로써 텍스트에 등장한 특정 단어 혹은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도출한 패턴 혹은 주제로 결정할 수 있다. 「유형 II」에서 ‘인식과 태도’가 주제의 예에 해당되며, 여기서 태도는 측정을 위하여 비판, 옹호, 중립으로 세분되었다(이상호, 2001). 이러한 분석기준 간의 간격 혹은 분석기준의 수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의 척도의 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기준은 분석단위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하며 연구자간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즉, 연구자는 필요할 경우 연구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Berelson(1952)은 가능한 하나의 분석단위는 하나의 기준에만 속하도록 상호배타적이어야 하며, 모든 분석단위는 반드시 어느 하나의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망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분석단위와 기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지 그리고 어떠한 분석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4. 코딩과 결과의 해석

코딩(coding)은 분석단위를 분석기준에 맞게 배열하는 것이다. 분석기준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분석단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코더(coder)의 몫이다. 분석기준으로써 단어의 경우,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모든 코더가 동의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배열은 코더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코딩의 적절성이 내용분석의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

내용분석이 과학적 엄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은 코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분석

단위로써 기사의 주제가 여럿일 수 있어 코더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 이 높은 경우이다. 둘째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할 때 코더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배열에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경우이다. 셋째로 신문 기사는 편집양식이 과거와 다를 수 있고, 그럴 경우 기사의 배치와 종류의 파악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이다.

내용분석은 코더의 자의성 개입을 줄여 분류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관건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복수의 코더를 동원하는 것과 분석기준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에 더하여 동일한 연구문제에 복수의 자료를 분석단위로 삼아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되기도 한다(나태준, 2005). 이 방안은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줄이거나 상이한 분석단위를 분류한 결과 일치성이 높게 나타나면 객관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내용분석은 분석단위가 주제 혹은 상징이거나 방대한 경우처럼 코더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⁵⁾

코딩이 끝나면 적절한 통계적 절차를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게 된다. 내용분석에서는 명목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분석이 끝나면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술 혹은 해석하게 되는데, 보통 가설을 검증하려면 추리통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방법론과 동일하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은 코딩의 일치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코더의 수, 코더의 훈련, 그리고 신뢰도 검사이다. 그리고 결과의 분석과 해석에 나타난 특징적인 사항을 아울러 검토하게 될 것이다.

5) 신뢰도란 분류가 코더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분석항목의 선택의 폭에 따라 측정방법이 달라진다. 만약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면 코더간 일치확률이 아주 낮을 것이며, 이 경우 코더간 분류점수가 단순히 일치하는 항목을 계산하는 Holsti의 계수로 측정하게 된다. 반대로 분석 항목이 ‘긍정 중립 부정’과 같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우연의 일치 확률이 높을 것이고, 따라서 코더간 단순합치도에서 우연 합치의 확률을 빼주는 방식인 Scott 혹은 Cohen의 계수로 측정하게 된다(김성태, 2005; 유재천·김동규, 1995).

〈표 1〉 내용분석 단계별 검토 항목

단계	세부 과정 및 절차	검토항목
문제인식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연구문제 혹은 가설의 명확한 설정
연구설계	자료의 규정과 표본선정	문헌자료의 종류와 범위의 규정 표본의 성격과 표집방법의 기술
	분석단위의 설정 분석기준의 결정	분석단위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조작적 정의
분석 및 결과 해석	코딩	코딩지침
	통계적 절차의 적용과 분석	코더의 수·훈련
	결과의 해석	신뢰도

IV. 내용분석의 방법론적 분석

1. 분석자료

분석할 자료는 1991년 25권 1호부터 2005년 39권 6호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내용분석법을 적용한 논문이다. <표 2>에서 보듯이 1032편을 전수조사 한 결과 문헌연구법에 의한 논문은 69편으로 분류되었고 내용분석법을 적용한 논문은 39편에 불과하였다.

〈표 2〉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내용분석 논문의 편수

	1991-1993	1994-1996	1997-1999	2000-2002	2003-2005	계
게재논문	220	207	198	190	217	1032
문헌연구	12	16	9	18	14	69
내용분석	5	11	5	8	10	39

주: 해당기간 동안 서평과 반론의 논문은 제외되었음.

질적 양적 연구에 대한 개념 규정과 분류기준의 적용이 연구자간 서로 다른 것처럼 내용분석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어 분류된 논문의 편수에 차이가 날 수 있다.⁶⁾ 이 연구에서는 앞장에서 논의한 개념상의 쟁점 네 가지

6) 주상현(2002)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내용분석 논문은 45편이며, 이 가운데 마지막 2년간은 11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윤견수(2005)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내용분석에 충실한 논문은 단지 8편에 불과하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

즉, 문헌자료의 분석, 명백한 또는 잠재적인 내용의 분석, 체계적인 분석, 계량적 분석의 요건을 분류기준으로 삼았다. 때문에 절적 양적 내용분석과 내용분석 법이 보조적으로 사용된 사례도 함께 분석자료에 포함되었다. 거듭 말하여 이 연구는 내용분석법의 적용과정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논문에서 이것이 주된 연구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연구자가 직접 1032편을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가지 특징적인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학술정보에 수록된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달리 행정학 분야의 논문은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였음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김종순(1995), 오영석(1998), 이상호(2001) 등 11편을 제외하고 이를 밝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1032편 가운데 저자 자신이 내용분석법을 적용했다고 밝힌 논문일지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되는 논문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분류기준의 적용이 ‘그렇다 아니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여 분석자료의 선정에 어려움이 없었다.⁷⁾

그러나 문헌연구와 내용분석의 엄격한 구분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많지는 않았지만 주로 정부백서나 예산서를 분석 자료로 사용한 논문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문헌연구는 특정한 문헌자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얻고 있으나, 추론이 목적이 아니며 반드시 분석단위나 기준과 같은 일정한 절차의 적용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빈도이건 주관적 진술이건 계량적 측정이 필요한 것은 더욱 아니라는 점에서 내용분석과 구분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결론 혹은 추론이란 개념보다는 계량적 측정의 유무가 양자를 구분하는 보다 쉬운 기준이 되었다.

<표 2>에서 선정된 39편의 논문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유형화 기준은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한 문헌의 종류이다. 이에 따르면 행정학계에서 선호하는 내용분석 자료는 연구논문, 정부기록, 신문기사, 역사기록 순임을 알 수 있다.

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연구자간 내용분석의 분류기준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적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7) 보통 분석자료의 선정에서 신뢰성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과정이 분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코딩단계와 다름없이 신뢰성을 보고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연구 여건상 부득이 직접 분석자료의 선정과 코딩을 수행하였고 따라서 신뢰도 계수의 보고를 생략하였다.

2. 분석결과

1) 연구문제 혹은 가설의 설정

모든 과정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내용분석법의 엄격한 과정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아서인지 연구문제나 가설을 설정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16편(41%)이 연구문제 혹은 가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 가운데 9편은 별도의 단계로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했고 나머지 7편은 연구목적 혹은 서론의 형태로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23편(59%)은 전혀 언급이 없어 연구목적 혹은 분석틀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연구문제 등을 분명하게 기술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연구가 내용분석법을 적용했다고 언급한 사례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11편 가운데 5편만이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5편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명확하게 언급한 5편 가운데 2편은 표본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가설을 설정하고 있는 논문이다. 보통 연구 가설은 변수간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기준이론을 검증하거나 문헌의 내용적 특성을 추론하는데 이용되나 흥미롭게도 이 사례는 가설이라기보다 연구문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약하면 대다수의 연구가 연구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내용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내용분석의 목적이 주로 경향성과 요인 파악과 같은 단순한 기술에 있으며 따라서 탐색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문헌자료의 규정과 표본선정

(1) 문헌자료의 종류와 범위의 규정

전체적으로 30편(77%)은 문헌의 종류와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9편(23%)은 종류만 간략하게 언급하여 논문의 내용을 정독하지 않고는 분석하고자 하는 범위의 파악이 어려웠다. 분석에 나타난 유형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메타분석에 의한「유형 I」은 종류와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가 한국행정학의 경향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의 문헌자료를 분석한 사례도 3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한국행정학의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의도한 13편 가운데 12편은 한국행정학보를 반드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고, 이 가운데 6편은 한국행정학보만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자료로써 한국행정학보의 높은 신뢰성과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행정학보를 제외한 다른 학술지의 독자적 영향력

이 낮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연구가 내용분석법을 적용했다고 밝힌 연구 11편 가운데 4편은 문헌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구축된 DB는 범례를 통하여 수록 범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이를 보고하는데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형 II」도 명확하게 기술하기 쉬운 문헌이나, 8편 가운데 2편은 각각 분석할 기사의 종류와 시간적 범위를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분석대상으로 중앙지가 6편이고 지방지는 2편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연구자료로써 중앙지가 선호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지는 자료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때때로 연구문제와 무관하게 몇 가지 우려를 갖게 된다. 이것은 지방신문의 내재적 한계로써 말하자면 지방신문사의 난립, 전문기자의 부족, 그리고 과행적 운영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기사의 질적 가치로 비약되어 연구자료로써 지방지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중앙지가 자료로써 반드시 신뢰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지를 선정할 경우 해결해야 할 연구문제가 중앙지보다 더 타당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사의 질적 가치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설이나 논설과 같은 최소한 정제된 기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기사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아니면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면 중앙지라도 신뢰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2) 표본의 성격과 표집방법의 기술

대다수가 연구목적 모집단과 표본추출 모집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더라도 파악에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표본추출 모집단에 대한 기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무런 언급이 없어 표본의 성격을 짐작하기 어려운 논문이 7편이었다. 이 가운데 6편은 앞서 문헌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한 6편과 일치하고 있다.

표집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자가 규정해 놓은 연구목적 모집단을 전수조사한 경우로써 4편이 이에 해당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행정학보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몇몇 권위있는 학술지를 추가로 선정한 경우로써 「유형 I」의 2편,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1980년대」와 같이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 이 기간에 해당하는 문헌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유형 III」의 1편 등이다.

둘째, 표본추출 모집단을 전수조사한 경우가 15편을 차지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예외적으로 확률표본추출에 의거하였음을 밝히는 1편을 제외하고 모두 연구

자가 임의의 방법으로 표본추출 모집단을 구성한 경우이다. 이와 유사하게 표본 추출 모집단의 일부를 임의로 표집한 연구도 10편을 차지하였다.

셋째, 표집방법을 짐작할 수 없는 경우가 10편을 차지하였고, 이 가운데는 「사례를 인용하였다」와 같이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1편 있었다. 이 유형은 특히 「유형 III·IV」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문헌자료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표본추출이 아주 쉬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집방법을 짐작할 수 없어 혼란을 초래한 것은 연구자가 이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하였거나 아니면 내용분석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나머지 이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표본의 성격 혹은 표집방법을 짐작할 수 없는 10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일치성 판단이 어렵지 않았다. 물론 두 집단의 성격에 대한 기술이 비교적 명확한 것도 이유가 된다. 더욱이 대다수 표본집단이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또 전수조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유형 II」 가운데 언론관계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자료를 분석할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확률표본추출을 사용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지방선거, 지역개발, 예산안심의 같은 특정분야의 기사는 특정시기에만 집중 보도되는 관계로 계통표본 추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신문의 모집단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방법의 타당성이나 결과의 신뢰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표성 문제는 할당표본추출이라 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표본추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표본추출에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언론재단이 구축한 인터넷 기사검색 데이터베이스(KIND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개별 분석단위를 놓고 비교해 볼 때, 모든 기사를 수록하지 못하여 간혹 누락된 기사가 있었으며, 일자별 기사검색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DB특성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심지어 기사작성 일자와 발간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기사의 종류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용에 제한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모집단과 표본집단이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논문은 29편 (74.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거의 일치한다. 표본선정의 문제로 인하여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일치성 비율은 사례연구법을 적용한 논문보다(김태일·서주현, 1998) 내용분석법을 적용한 논문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분석단위와 분석기준의 설정

(1) 분석단위의 규정

내용분석의 핵심은 바로 객관적인 분류와 측정에 있기 때문에 분석단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규정해야 한다. 분석단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연구는 12편(31%)이다. 「유형 I」의 8편은 항목단위로써 주로 논문 1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유형 II」의 4편은 항목과 주제단위로써 기사 또는 기사의 주제로 설정하여 모두 측정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측정과 별도로 여기서 사용된 주제단위는 경계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분석단위를 규정하지 않은 27편 가운데 23편은 논문을 정독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었다.⁸⁾ 그러나 파악이 어려운 것 가운데는 분석단위가 개별신문 기사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와 ‘중심단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분석단위가 회의록 속기록 정부백서의 어느 항 혹은 어느 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2) 분석기준의 규정

분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는 12편(31%)이며, 이 가운데 8편은 분석단위도 분명하게 제시하여 측정이 용이하였다. 그런데 대다수는 분석기준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두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분석기준을 규정하지 않아도 연구목적 등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형이다. 탐색적 연구로써 연구문제가 비교적 간단하고 개별 연구가 조사방법론적 절차를 강조하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4편이 이에 속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은 분석단위의 파악에 어려움이 없었고 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할 정도로 모호하지 않았다.

둘째는 분석기준의 파악이 어려운 유형이다. DB의 내용 색인을 이용하였다고 언급하거나 측정 변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여 분석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3편이 해당하였다. 분석기준은 내용의 분류와 측정에 필요한 변수로써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측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4) 코딩과 결과의 해석

코더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더의 수, 훈련, 신뢰도 등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체적으로 분류 방법과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한 경우는 15편(38%)에 불과하고 나머지 24편(62%)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보고하지

8) 분석단위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분석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분석기준은 규정하였지만 분석단위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않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코딩의 신뢰성을 떠나 15편 가운데 비교적 내용분석의 과정에 충실한 「유형 II」의 2편만이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 단계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급하였듯이 대다수는 탐색적 연구에 해당하여 연구문제와 분석기준이 간단하여 문제가 없으나 분석단위는 그렇지 못하다. 개별 분석단위가 한편의 논문이라 가정할 때 복수의 연구방법론과 연구주제를 사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혼란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는 분석해야 할 수많은 사례에서 ‘관련 변수가 각기 달라 분류하기가 어렵다’ 혹은 ‘분류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분류과정과 코더에 관한 보고 사항은 생략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둘째, 내용분석은 연구문제를 잘 이해하여 체계적으로 코딩을 수행할 수 있는 코더의 확보가 관건이다. 15편 가운데는 ‘분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석요원 5명’, ‘불일치할 경우 제3자의 자문과 조정을 거쳤다’고 보고하여 코더의 수와 자의성 방지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간혹 제한된 연구 기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하여 관행적으로 대학원생과 조교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연구 여건상 불가피하다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가능한 분석기준을 숙지하고 있으며 경험 있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일치성을 높이기 위하여 코딩지침에 따라 철저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⁹⁾ 반대로 「유형 II」와 같이 분류할 내용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혼자서 코딩하는 것도 역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분류에 상당한 피로도가 쌓여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이 어느 유형보다 높기 때문이다.

셋째, 분류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거나 언급한 것은 단지 3편에 불과하다. 물론 분석기준이 간단하여 분석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헌자료의 분석은 어떠한 기법을 사용하였건 개관적인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분석이 적절하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례와 같이 내용분석법을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그 필요성이 적다하더라도 이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뢰도 계수가 중요하지만 항상 객관성을 보증하거나 유일한 수단은 아닐 것이다. 이보다 코더의 학자적 양심이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면담이나 설문조사의 경우 언제든지 조사자료의 재검토가 가능하지만 내용분석 자료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코더는 자신에게 보다 엄격하여 분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코딩지침에 관한 적절한 예로써 Harris(2001)의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지침서는 연구문제의 성격, 분석기준, 코딩의 일반적 규칙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내용분석에 의한 행정학 연구가 이 기법의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또 문제점이 없는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내용분석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고, 분석자료가 연구기법으로써 내용분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논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주장이 어렵다. 하지만 규명된 문제점과 특징은 추후 행정학 분야에서 이 기법의 적용을 한층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행정학 연구는 내용분석 절차의 적용에 엄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개념의 적용에 따르면 문헌자료의 규정, 분석단위와 기준의 설정, 코딩 단계는 내용분석의 핵심적인 과정에 속하며 각 단계별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체크리스트로 전 과정을 정리해 본 결과 위의 과정에 충실한 논문은 단지 5편(13%)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내용분석의 기본원칙을 등한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율이 낮은 것은 분석자료로써 문헌자료의 규정에 기인할 수도 있다. 즉, 내용분석법이 보조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다른 연구방법론과 병행하고 있는 논문도 표본에 포함하였고 따라서 표본의 28편(72%)은 완전히 내용분석의 절차와 과정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만큼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용분석을 적용했다고 밝힌 논문일지라도 단지 3편만이 이 과정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위의 지적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사례를 정독하다 보면 대다수는 내용분석을 문헌연구과 비슷하게 인식하여 기본적인 절차 대신 조사방법론적 사항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내용분석과 문헌연구의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고 내용분석에 관한 절차의 생략이 개별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헌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문헌연구의 목적이고 또한 가능한 객관적 분석을 위하여 연구자의 자의성 방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문헌연구도 가능한 내용분석과 다름 없이 기본적인 절차를 보고하는 것이 분류의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내용분석은 단순히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수를 집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내용분석은 질적 자료를 양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방법론이기 때문에 과학적 객관적 절차의 적용이 특히 요구된다. 표본처럼 일정한 절차의 적용이 없어도 연구목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연구결과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과학적 연구가 그러하듯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과정이 없이는 독자들도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용

분석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학 분야는 아직 내용분석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탐색적 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분석법을 적용한 대다수의 연구가 내용의 단순한 기술(description)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효과나 영향력을 추론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나 연구논문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연구도 없지 않으나 대다수는 경향성 파악에 치중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주제의 선택이 다양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내용분석의 내생적 한계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지적이 있다(나태준, 2005; Woodrum, 1984). 즉,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법의 활용도가 낮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어느 기법도 완벽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내생적 한계는 기법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연구자의 자세에 기인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높은 학자적 양심과 더불어 코딩지침과 같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그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분석이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하고 과학적인 절차를 적용한다면 행정학은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지평을 확장하고 더욱 많은 경험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객관성에 대한 우려로 활용도가 낮았던 질적 내용분석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¹⁰⁾ 예컨대, 조선시대 관료들의 공직관이나 행정개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당시 목민관들의 사신 또는 과거시험 답안을 내용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활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웹상의 모든 문서를 분석단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탐색적 연구차원이 아니라 정교한 분석기준의 설정여하에 따라 다양한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용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을 단순히 주관성 혹은 편의로 취급하여 배척하여 왔다. 하지만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과 해석없이 객관적인 분석만으로 어떠한 의미있는 제안도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용분석은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연구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보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 (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139-153.

10) 이 제안은 심사위원이 코멘트한 몇 가지 가운데 하나를 인용한 것이다.

- 김경동·이은죽. (1995). 「사회조사연구방법: 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서울: 박영사.
- 김성태. (2005). 국내 내용분석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커뮤니케이션론」, 1(2): 39-66.
- 김종순. (1995).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태분석: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3): 641-660.
- 김태일·서주현. (1998). 행정학 분야에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 분석. 「한국행정학보」, 32(3): 199-215.
- 나태준. (2005). 내용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분석의 시도: 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3): 207-230.
- 오영석. (1998). 지구환경정책의 지역정책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2(1): 231-245.
- 유재친·김동규 역. (1995). 「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윤견수. (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언. 「한국행정학보」, 39(2): 1-22.
- 이상호. (2001). 지방자치에 관한 지방지의 인식과 태도: 매일신문(1991-1998) 내용분석에 의한 총괄적 평가. 「한국행정학보」, 35(4): 335-354.
- 주상현. (2002).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39-55.
- 하태권. (1995). 한국인사행정의 실증적 연구에 대한 고찰: 연구경향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4): 1463-1483.
- Ahuvia, Aaron. (2001). Traditional, Interpretive, and Reception Based Content Analysis: Improving the Ability of Content Analysis to Address Issues of Programmatic and Theoretical Concer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 139-172.
- Berelson, Bernard.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Y: The Free Press.
- Harris, Howard. (2001). Content Analysis of Secondary Data: A Study of Courage in Manageri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34: 191-208.
- Holsti, Ole R.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Hsieh, Hsiu-Fang & Shannon, Sarah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1277-1288.
- Markoff, J., Shapiro, G. & Weitman, S. (1975). Toward the Integration of Content Analysis and General Methodology. In D. Heise ed(1975), *Sociological Methodology*, SF: Jossey Bass. 1-58. Woodrum(1984)에서 재인용.

- Riffe, Daniel., Lacy, Stephen & Fico, Frederick G. (1998). *Analyzing Media Messag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Woodrum, Eric. (1984). Mainstreaming Content Analysis in Social Science: Methodological Advantages, Obstacles, and Solu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13(1): 1-19.

〈부록〉 내용분석법에 의한 연구 논문의 분류

	연구자
유형 I (연구논문)	배용환(2000: 34(4)) 조경호(1998: 32(2)) 김태일(1997: 31(3)) 권경득(1996: 30(4)) 이시원·정준금(1996: 30(2)) 이기종·윤석경(1996: 30(2)) 하태권(1995: 29(4)) 김인철(1992: 26(4)) 이영균(1994: 28(4)) 김판석(1995: 29(4)) 김태일·서주현(1998: 32(3)) 김태일(2003: 37(1)) 윤건수(2005: 39(2)) 이창원·전주상(2004: 38(2)) 주상현(2002: 36(3)) 허만용(2001: 35(3))
유형 II (신문기사)	박기욱(2000: 34(3)) 김성철·장석영·강여진(2000: 34(2)) 정익제·정창무(1996: 30(1)) 이상호(2001: 35(4); 2003: 37(4)) 윤태범(1994: 28(1)) 박기욱(2005: 39(1)) 한승연(2004: 38(5))
유형 III (정부기록서)	윤영진(1993: 27(4)) 김종순(1995: 29(3)) 황종규(2005: 39(3); 2005: 39(4)) 김기언(1994: 28(3)) 나중식·정진주(2003: 37(2)) 박종구(1992: 26(2)) 송희준(1992: 26(2)) 김근세·권순정(2000: 34(1)) 주재현(1999: 33(1)) 오영석(1998: 32(1)) 김근세·최도림(1996: 30(3)) 민진(1993: 27(3))
유형 IV (역사기록서)	오영석·최병옥(2000: 34(1)) 이대희(2003: 37(4))

Abstract

Methodological Review of Content Analysis Applied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Sangho Lee

Content analysis is a very useful research method as it has advantages for contributing to social science studies. Content analysis makes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ies feasible and is a very safe method enough to review errors in the procedural stage. Nevertheless, an intrinsic limitation is the lack of reliability, which is mostly caused by analyst intervention bias and leads to the underutilization of this method in actual studies. Taking these facts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analyzed some problems with the procedur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of content analysis applied to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Thirty-nine articles were sampled from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categories for analysis were established based on several issues that could be posed on the basic procedures of content analysis. Although most of the sampled articles used content analysis as a secondary research method, there were some errors of not reporting basic information, such as units and the creation of categories, coding method, and reliability-related figures. Since an insufficient number of examples employing content analysis exist, a clear conclusion is hard to draw. However,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verified can act as an opportunity for the further application of this method i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Key words: content analysis, document study, meta analysis】